

## NATO의 다국적 합동수행병력 (Combined Joint Task Force)과 집단안보

이수형

국제평화전략연구원

냉전 종식과 더불어 국제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명확한 위협국가는 사라졌다. 또한 냉전 종식의 여파로 유럽의 안보환경은 과거와는 다른 유형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NATO는 냉전 이후 생존을 위한 새로운 존재이유와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논리틀인 신전략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창조와 군사지휘구조의 개편이라는 이중적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다. 그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한 것은 집단안보 역할에 대한 강조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창설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1991년 11월 로마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신전략개념을 바탕으로 한 NATO의 구조조정을 논의하고 집단안보의 공공재 성격, 회원국가들 간의 병력투사 능력의 비대칭성, 그리고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간의 전략문화의 상이성이라는 세가지 변수가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집단안보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NATO 회원국가들은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집단안보 역할을 둘러싸고 긴장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집단안보 역할의 성공여부를 가능하는 척도라 할 수 있는 세가지 변수들의 성격은 단기내에 상호 조정과 융합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집단안보 역할은 현실적으로 일부 주요 국가들만의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 NATO 확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만약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안보의 지역화 현상이 강화된다면 NATO의 집단방위 역할은 사실상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NATO 회원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제 NATO는 필수적 동맹이 아닌 하나의 선택적 동맹이 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는 점이다.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실제적인 집단안보 역할은 NATO가 냉전의 일시적 부산물이었는지, 아니면 냉전을 초월하는 가치와 논거를 지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 1. 서론

지난 냉전시대 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서유럽의 안보를 성공적으로 지켜왔고,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간의 동맹관계를 강화해 왔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간의 갈등이나 긴장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관계의 지속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냉전체제에서 NATO가 상징한 위협국가의 명확한 존재 때문이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과 더불어 국제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NATO의 명확한 위협국가는 사라졌다. 또한 냉전 종식의 여파로 유럽의 안보환경은 과거와는 다른 유형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NATO는 1991년 11월 로마 정상회담을 통해

신전략개념(New Strategic Concept)을 채택하였다. NATO는 신전략개념을 바탕으로 유럽의 안정화를 피하고 21세기에 직면할 새로운 유형의 안보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다. 즉 NATO는 임무·역할의 조정과 군사구조의 개편이라는 이중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NATO는 냉전시대 주 임무였던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보다는 자신의 방위영역 외에서(out-of-area) 전개되는 위기 관리와 평화활동으로 대변되는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또한 이러한 임무를 효율적·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국적 합동수행병력(CJTF: Combined Joint Task Force)<sup>1)</sup>의 창설을 추진해 왔다.

NATO의 역할과 관련하여, 집단안보는 집단방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집단방위가 명백한 위협국가를 상정하고 위협의 완화보다는 군사력의 균형을 통해 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집단안보는 집단방위와는 달리 응징할 적을 사전에 규정하지 않으며, 위협은 공동체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다. 그리고 위협을 회피하는 것은 적어도 군사력으로 외부 위협을 억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Claude, 1971: 245-285).

그러나 고덴커와 바이스의 지적처럼(Gordenker & Weiss, 1993: 3-18), 1·2차 세계 대전과 냉전의 경험으로 정치 지도자들과 정책 분석가들은 집단안보의 개념을 상이하게 해석·사용하였다. 어떤 경우에 집단안보 개념은 동맹을 위한 도덕적·물리적 기반으로 혹은 안보위기에서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변명으로 사용되었다. 다른 경우에 집단안보 개념은 국제연맹의 경우뿐만 아니라 유엔의 평화유지체계를 특징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명백한 위협을 상정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설명할 경우에도 집단안보 개념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NATO 창설시 주 임무는 이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분명 집단안보의 역할보다는 명백한 위협을 상정한 집단방위의 역할이었다(Carpenter, 1992: 45; Legge, 1991: 9).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NATO에서 발생한 제도화의 심화와 경제적 통합에서의 기능적 변화들, 그리고 냉전체제에도 불구하고 동-서간의 협력과 유럽에서의 평화유지 등은 NATO의 집단안보 역할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 실제적으로 1988년 12월 1-2일에 있었던 방위기획위원회(DPC)는 “동맹의 집단안보 증진: 동맹에서 공유된 역할, 위협, 그리고 책임감(Enhancing Alliance Collective Security: Shared Roles, Risks, and Responsibilities)”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다.<sup>2)</sup>

1)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에서 “combined”는 multinational의 뜻으로, 적어도 2개국 이상의 참여를 내포하고 있다. “joint”는 multiservices의 뜻으로 적어도 2개 이상의 군별(services)을 의미한다. 그리고 “task force”는 특별한 작전 목적을 위한 군사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은 특정의 우발적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전개되는 군사력이다(Cragg, 1996: 7).

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ATO의 집단안보 역할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정의한다. 첫째, NATO는 자신의 위협국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둘째, NATO 회원국가들 간의 위협을 고려하지 않는다. 셋째, NATO 회원국가들의 영토방위보다는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 규정된 회원국가들

본 논문의 목적은 냉전 이후 NATO의 새로운 존재이유와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논리 틀인 신전략개념을 바탕으로 한 NATO의 구조조정 과정을 논의하고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집단안보 역할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들을 미국-서유럽 관계라는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집단안보 역할의 성공적 수행여부는 NATO의 이중적 구조조정의 핵심이자 21세기 미국-서유럽 관계 설정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집단안보 역할은 NATO가 냉전의 일시적 부산물이었는지, 아니면 냉전을 초월하는 가치와 논거를 지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고, 나아가 21세기 미국과 유럽관계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 새로운 전략환경과 NATO의 신전략개념

냉전 종식은 유럽의 안보환경을 급격히 변화시켰다. 분단국 독일의 통일, 바르샤바조약기구(WTO)의 해체, 소연방의 붕괴와 그에 따른 위성국가들의 주권 회복, 발틱 3개국의 독립, 헝가리, 체코, 폴란드, 그리고 독일에 주둔해 있던 구소련 병력의 철수 등 냉전시대에 NATO의 위협국가들이었던 지역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이와같은 격변은 지정학적 지진이었고, 금세기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의 여파로 수립된 베르사이유(Versailles)와 알타(Yalta) 질서를 해체시켰다 (Asmus, 1997: 24-25).

냉전 종식은 유럽 안보를 위한 전망을 상당히 개선시켜 놓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지역에서 파생되는 불안정과 잠재적 위협 요소들이라는 판도라의 상자(Pandora's box)를 열어 놨다.<sup>3)</sup> 따라서 NATO가 직면하거나 대처해야 할 안보 위협은 회원국가들의 영토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보다는 중·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종분규와 영토분쟁 등을 포함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곤경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에서 연유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위협들은 본질적으로 다면적·전방향적이고 예측과 평가가 어렵다. 유럽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새로운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방법이 냉전이 종식된 지금 유럽 대륙의 일차적인 안보문제가 되었다.

안보환경의 변화로 냉전의 부산물인 NATO는 생존을 위한 존재이유와 정체성 확보가 필요하였다. 1989년 냉전이 종식된 이후 1990년과 1991년에 걸쳐서 NATO의 존재 여부는 불투명하였다 (Lepgold, 1998: 80). 그러나 NATO 회원국가들은 NATO의 역할이 재정의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제레짐이론에서 시사하듯이(Keohane, 1984), 거래비용의 중요성과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NATO 회원국가들은 새로운 안보제도를 창설하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안보제도를 새로운 목적과 역할에 맞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다. 따라서 NATO는 서유

의 방위영역을 넘어서서 전개되는 위기관리, 평화유지, 정전 집행, 그리고 인도주의적 원조 활동 등을 지칭한다.

3)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낙관론적 입장에 대해서는 Gamett(1996: 12-39) 참조.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회의론적 입장에 대해서는 Mearsheimer(1990: 5-56) 참조

럽 방위로부터 유럽 전체에 걸쳐서 안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감을 확대해야 했다 (Asmus et al, 1993: 28-40).

1990년 7월 런던회담에서 NATO 정상들은 유럽에서 발생했던 급격한 변화들을 반영하여 NATO의 신전략개념을 구성하였다. 신전략개념은 대서양동맹의 안보목표 추구를 위한 개념적 토대를 제공하고 정치적 접근방법의 강화와 군사력의 상당한 감축과 재조정을 포함하는 안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방법(broad approach)을 수용하였다 (Legge, 1991: 9). 이러한 신전략개념은 1991년 11월의 로마 정상회담에서 채택되었다.<sup>4)</sup> 따라서 냉전시대 NATO의 전진방위 개념과 유연반응전략은 쓸모없게 되었다.

신전략개념은 NATO의 일차적인 목표를 적어도 두가지 목적에서 과거의 집단방위의 역할에서 찾고 있다. NATO가 기존의 집단방위의 역할을 강조하는 첫번째 측면은 NATO의 동쪽으로의 확대정책<sup>5)</sup>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서 여전히 회원국가들에게 안보 공동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NATO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fP)에서 엿볼 수 있다. 1994년 1월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북대서양이사회(NAC)는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프로그램의 합의문서(framework document)에서도 알 수 있듯이(NATO, 1995: 265-68), NATO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반자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유럽의 안정을 꾀하고 평화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NATO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반자 국가들이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이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 직면했을지라도 그들에게 어떠한 안보보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집단방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두번째 목적은 회원국가들에게 제공되는 재래식·핵 보호이다. 재래식 보호가 본질적으로 러시아 위협의 재발에 따른 것이라면, 핵보호의 목적은 평화를 보전하고 억압과 어떠한 종류의 전쟁도 예방하기 위한 정치적인 것이다 (NATO, 1995: 247). 특히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핵역지가 아직까지도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미국의 코헨(William Cohen) 국방장관은 자신의 인준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핵재앙이라는 위협이 의미심장할 정도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스러운 상태이다. 적대적 정권들과 불안정이 서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와 같은 주요 지역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 불안정, 민족주의, 그리고 인종분쟁은 유럽에 위협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은 우리의 이익, 우리의 전력,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본토를 위협한다... 우리는 위협들이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게 발생할 수 있는 과거의 역사를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 올 필요가 없다” (Slocombe, 1997: 24).

4) 로마 정상회담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당시 북대서양이사회의 의장이자 NATO 사무총장이었던 Worner(1991: 3-8) 참조. 또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NATO 정상회담(the meeting of Allianc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의 발전과 그 성격에 관해서는 Park(1996: 88-105) 참조

5) NATO 확대정책에 대해서는 Goldgeier(1998: 85-102), Eyal(1997: 695-719), Ball(1988: 43-67) 참조

그러나 신전략개념을 통해 나타난 NATO의 집단방위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이 언급했듯이(Gen. Joulwan, 1995: 4), 이제 NATO는 전통적인 방위임무에 대한 강조보다는 위기관리와 평화유지 임무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오늘날의 국제정치환경이 인종적 속세주의와, 구(舊)소연방의 일원이었던 국가들의 탈식민지화 과정이 지구적·지역적 의제를 지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때문에(Freedman, 1991, 1992: 20-37) NATO에게 있어서 과거에 존재했던 방위영역 내·외부의 이익과 갈등사이의 전략적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NATO의 신전략개념은 방위지침(Guidelines for Defence)을 통해 NATO 전략의 원칙, 새로운 병력상황, 군병력의 임무, 병력상황지침, 재래식병력과 핵전력의 특징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방위지침의 4번째 부분(Part IV)의 병력상황지침(Guidelines for the Alliance's Force Posture)을 통해 NATO는 변화된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자신의 전체적인 병력규모를 감축하고, 중부지역에서의 기존의 선형적 방위(in-place linear defensive)를 포기하고, 유사시 융통성과 기동성, 그리고 확실한 증원능력을 갖춘 병력의 강화와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 완화 및 유럽에서의 전술핵무기의 근본적 감축 등을 제시하였다(NATO, 1995: 244-48). 결국 유럽 안보환경의 변화로 NATO는 예측하기 어려운 범위와 차원의 안보 위협에 대처할 필요성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NATO의 신전략개념 속에 기존의 집단방위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NATO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전략적 환경에서 위기관리와 평화활동으로 대변되는 집단안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무엇보다도 신전략개념과 냉전시대 NATO의 일련의 군사전략이었던 1949년 12월에 채택된 방위위원회(DC 6)의 전략개념(The Strategic Concept for the Defence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Area), 1950년에 채택된 군사위원회(MC 14), 1952년의 군사위원회(MC 14/1), 대량보복전략으로 알려진 1957년의 군사위원회(MC 14/2), 그리고 유연반응전략으로 알려진 1967년의 군사위원회(MC 14/3)와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냉전시대 NATO의 이러한 군사전략의 변화속에서 한가지 공통점은 바르샤바조약기구로부터의 위협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NATO의 주된 임무는 서유럽의 안전을 보장하는 집단방위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유럽에서 보다 안정적인 동-서간의 정치적 관계를 강조했던 소위 하멜 보고서(Harmel Report)도 일차적으로 NATO의 집단방위 역할을 강조하였다(NATO, 1989: 402-404). 따라서 신전략개념에서 제시된 NATO의 집단방위 역할은 카플란의 지적처럼(Kaplan, 1990: 107) 집단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 III. NATO의 군사지휘 구조조정

신전략개념에 바탕한 NATO의 새로운 군사지휘구조의 발전은 냉전 종식이라는 안보환경의 변화, 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적·지역적 전략 변화, 그리고 안보에 있어 유럽의 자율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1991년 11월 NATO 정상들

은 NATO의 신전략개념을 채택하여 NATO의 새로운 존재이유와 그에 합당한 구조조정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신전략개념하에서 NATO는 보다 소규모적이고 유연성있는 병력으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NATO 회원국가들은 전력구조심사실무그룹(Force Structure Review Working Group)을 통해 1993년 10월까지 새로운 NATO를 위한 준비태세 상황과 적절한 군사력 감축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과거 위협에 기초한 접근방법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임무지향적(mission-oriented) 접근방법에 초점을 두었다 (Gen. Joulwan, 1995: 5). 그 결과 NATO는 과거와 같은 군사력의 유지보다는 위기관리와 같은 NATO의 새로운 임무수행에 필요한 신속대응군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따라 NATO는 병력 범주를 주방위병력(MDF), 대응병력(RF), 그리고 보강병력(AF)으로 구분하였고,<sup>6)</sup> 아울러 1994년 1월 브뤼셀회담에서 NATO 정상들은 NATO의 군사지휘구조의 개편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NATO 군사위원회(MC)는 1994년 9월 통합지휘구조 개편에 관한 NATO 장기연구(LTS: Long-Term Study)에 착수하였다 (Gen. Naumann, 1998: 10). 또한 NATO 장기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1996년 6월 베를린에서 NATO 외무장관들은 모든 유럽동맹국들이 NATO에서의 책임감 공유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NATO 내에 유럽안보방위조직(ESDI: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Identity)의 창설을 선언하였다.<sup>7)</sup> NATO 내에 창설된 유럽안보방위조직의 목적은 안보와 방위문제들에 있어서 유럽의 자율성 확대와 대서양간 연계를 유지하는 것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dePuig, 199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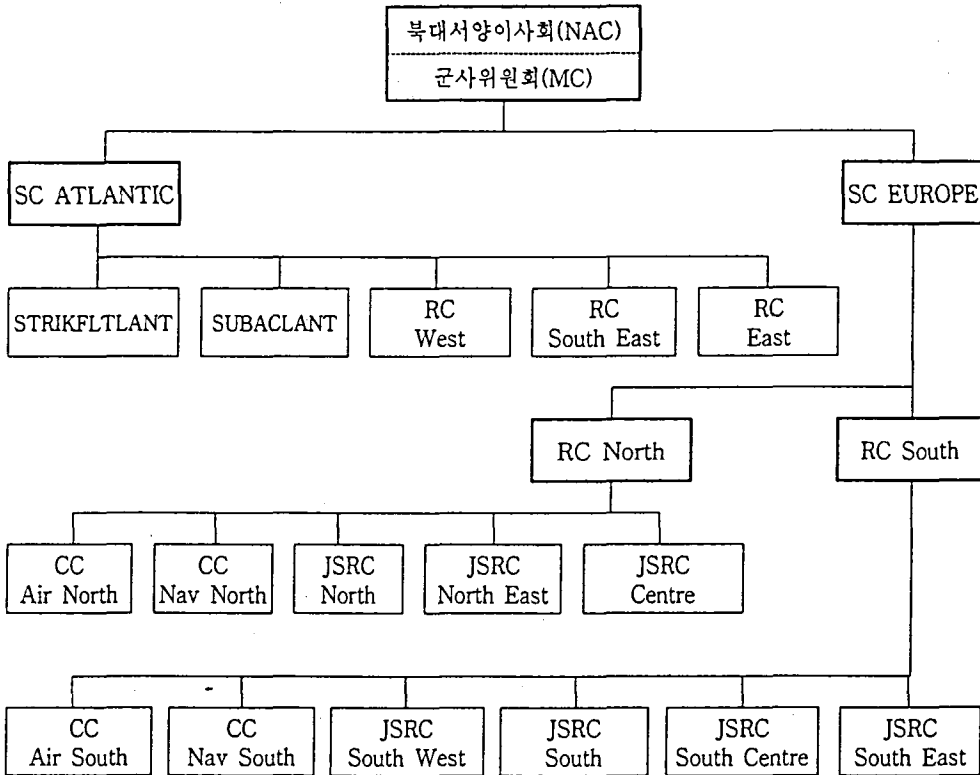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NATO의 새로운 군사지휘구조는 기존의 사령부에서 해협연합군사령부(ACCHAN)를 해체하고 유럽연합군사령부(ACE)와 대서양연합군사령부(ACLANT) 간의 책임지역을 분할함과 아울러 세계의 다국적 부대를 창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1997년 12월 NATO 국방장관들은 NATO의 새로운 군사지휘구조에 합의하여 기존의 지휘구조를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게 개편하였다. 1997년 12월 NATO 국방장관들이 합의한 새로운 군사지휘구조는 NATO의 군사적 효율성을 확보하고, 미국과 서유럽간의 연

6) 주방위병력(MDF)은 유럽에 주둔해 있는 다국적·국가적 부대를 의미하며 다양한 수준(보통 낮은 수준)에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응병력(RF)은 고도의 기동성을 갖춘 육·해·공군의 다국적 병력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한다. 대응병력 그 자체는 즉각대응병력과 유럽연합군사령부의 신속대응군단을 구성한다. 보강병력(AF)은 국가적 예비병력은 제쳐두고 기본적으로 대서양의 다른 진영, 즉 북아메리카의 미국과 캐나다 병력이다 (Heuser, 1996: 67에서 재인용).

7) NATO내에서 유럽국가들의 자율성 확대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마도 1980년대 초반 서유럽 안보논쟁에서 등장했던 유럽주의자(Europeanists)의 논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주의자들의 논지는 대서양동맹내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독자적인 유럽의 전략기동을 발전시켜야 하고, 전세계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 서유럽 국가들의 합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서유럽 국가들의 나름의 이익과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유럽안보방위조직이 탄생한 것은 이러한 유럽주의자들의 주장이 NATO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주의자의 논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ull(1983: 874-92) 참조

계를 유지하고, 동맹 내에서 유럽안보방위조직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군사지휘구조는 NATO가 모든 범위에 걸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집단방위라는 전통적인 임무에서부터 평화유지 활동과 같은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역할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다 (Gen. Naumann, 1998: 11).

<그림 1> NATO의 새로운 군사지휘구조



註: SC = Strategic Command (전략 사령부)  
 RC = Regional Command (지역 사령부)  
 CC = Component Command (요소 사령부)  
 JSRC = Joint Sub-Regional Command (합동하위지역사령부)  
 STRIKFLTANT = Striking Fleet Atlantic Command (대서양기동합대사령부)  
 SUBACLANT = Submarine Allied Command Atlantic (대서양잠수함연합군사령부)

출처: Gen. Naumann(1998: 12-13) 참조

또한 NATO의 새로운 군사지휘구조는 유럽안보방위조직과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을 병합해야만 하며 대서양동맹의 기획을 위한 최소한의 기선은 적어도 2개의 다국적 합동수행병력 사령본부가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지상과 해상에 기반한

소규모의 다국적 합동수행병력 사령본부를 구성하는 능력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아울러 NATO의 새로운 군사지휘구조는 성장 잠재력과 구조의 재조정없이 사례별로 신규 회원국을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코,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의 가입은 추가적인 NATO 사령부의 창설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되었다 (Gen. Naumann, 1998: 11).

이러한 측면에서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는 NATO의 새로운 군사지휘구조의 일반적인 윤곽에서 나타난 주요 군사령부로서는 전략사령부(SC), 지역사령부(RC), 요소사령부(CC), 그리고 합동하위지역사령부(JSRC)의 본부들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군사지휘구조의 발전 이외에 NATO는 새로운 군사지휘구조 내에서 대서양동맹의 모든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이한 지휘수준을 조정하는 방법을 표명하기 위해 상호관련성(interrelationships)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켰다.<sup>8)</sup> 이러한 새로운 개념은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다기능적 지휘구조와 더불어 대서양동맹의 임무수행을 위한 보다 유연한 접근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Gen. Naumann, 1998: 12-13).

이상에서 살펴본 NATO의 새로운 군사지휘구조의 일반적인 윤곽은 위의 <그림 1>과 같다.

#### IV. 다국적 합동수행병력과 집단안보 역할

##### 1.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개요

1991년 11월에 채택된 신전략개념에 따른 NATO의 새로운 군사지휘구조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창설일 것이다.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은 보스니아에서 NATO 주도 실행병력(IFOR)의 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운영되었던 유럽연합 군사령부의 신속대응군단에 기반하여 창설되었다. 지난 냉전시대 동안 NATO의 군사력은 대체적으로 억지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정적인 군사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수행병력은 특정의 단기적인 사건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구성되고 해체되었다. 따라서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은 일시적으로 지휘·통제체도를 갖고 있었던 다자적수행병력의 개념을 제도화한 것이다 (Barry, 1996: 89).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은 신전략개념에서 언급한 특정 임무들, 특히 평화유지, 정전집행, 그리고 난민보호 등에 관한 특정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은 이러한 임무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항하기 위해 결집된 병력보다 더 융통성있게 결집되고 이용될 수 있는 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에 달려 있다 (Barry, 1996: 89). 또한 NATO의 방위기획과 정책에 관한 사무총장 차관보인

8) 상호관련성이라는 개념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지원적 지휘관계의 강화와 전략사령부간의 연계성 강조, 둘째, 지역간의 상호의존성 강화의 필요성, 셋째, 지휘통제의 경계와 단계상의 유연접근방법에 대한 강조, 그리고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사령본부에 배치될 인력의 다국적성 강조 등이다 (Gen. Naumann, 1998: 13-14).



크래그가 언급했듯이(Cragg, 1996: 9), 다국적 합동수행병력 자체를 구성하는 부대는 그 임무의 특정한 정치·군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선발된다. 따라서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은 NATO의 정치·군사적 기능간의 차이를 줄이고 위기관리에서부터 집단방위에 이르는 활동들의 군사적 기획을 가능케하는 수단인 것이다 (Cornish, 1997: 24).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은 자신의 역할에 따른 지휘·통제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은 자신의 사령본부(HQ)를 필요로 한다. 원칙적으로 수행병력은 북대서양조약 제6조의 지역 내·외부에서 평화유지, 인도주의적 혹은 다른 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회원국가들과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국가들의 병력으로 구성된다. 톰슨이 언급한(Thomson, 1997: 86) 바와 같이, 평화시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본부창설의 필요성은 걸프전쟁 동안 입증되었는데, 다국적합동지휘구조의 조직화는 더디고 힘들다는 사실과 보스니아에서 평화실행병력(SFOR)을 준비하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NATO는 이러한 측면들과 기존의 군사구조와 관련하여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는 문제를 고려하여 실바 장군이 지적했듯이(Gen. deSilva, 1998: 16-19), 현존하는 주요 NATO 사령부의 인원들로 충당되며, 유사시 완전한 사령본부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틀을 갖춘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사령본부(CJTF HQ Nucleus)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일반적 구조는 상임조직과 비상임조직으로 구성된다 (Cragg, 1997: 34). 상임조직은 최소한의 기본틀을 갖춘 다국적 합동수행병력 본부로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모본부(parent headquarters) 요원들로 구성되며, 기획분과, 작전분과, 정보분과, 지원분과 등이 존재한다. 비상임조직은 증원모듈(augmentation modules)과 지원모듈(supporting modules)로 구성된다.<sup>9)</sup>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모본부들은 대서양기동함대사령부(STRIKFLTANT), 중유럽연합군(AFCENT), 남유럽연합군(AFSOUTH)이다. 또한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모본부들을 위한 실제적인 군사 훈련은 1996년에 시작되어 1997년과 1998년에는 각각 ‘연합적 노력 97(Allied Effort 97),’ ‘강력한 결의 98(Strong Resolve 98)’라는 훈련이 이루어졌다 (Gen. deSilva, 1998: 16-19). 그리고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완전한 실행은 1999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논의한 다국적 합동수행병력 본부의 일반적 구조는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다국적 합동수행병력 본부의 일반적 구조

상임조직(Permanent Staff Element)	비상임조직(Non-Permanent Staff Element)	
최소한의 기본틀을 갖춘 다국적 합동수행병력 본부 (CJTF HQ Nucleus)	증원 모듈 (Augmentation Modules)	지원 모듈 (Supporting Modules)

출처: Cragg(1997: 35) 참조

9) 여기에서 모듈이란 유사시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활동과 관련하여 NATO의 다른 사령부나 혹은 회원국가들로부터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자원을 의미한다.

## 2. 다국적 합동수행병력과 집단안보 역할

냉전 종식에 따른 NATO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안보의 역할과 이를 실제적으로 수행할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창설이다. NATO 회원국가들의 공식적인 성명서를 통해서 나타난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핵심은 회원국가들, 특히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유럽 내부와 주변지역에서의 불안정과 위협요소들을 제거하고, 나아가 새로운 국제적 평화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NATO가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회원국가들 간의 통일성과 성공을 보장하는 성명서의 이면을 생각한다면,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장래 목적이나 기능에 관해 훨씬 우려깊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집단안보 역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한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회원국가들의 응집력과 동맹 그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집단안보 역할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크게 세 가지 변수, 즉 집단안보 그 자체의 성격, 회원국가들 간의 병력투사 능력의 비대칭성, 그리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전략문화의 상이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집단안보 역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는 집단안보 그 자체의 성격에서 연유한다. 집단행동이론과 안보재(security goods)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NATO의 전통적인 집단방위의 역할은 비경쟁적이지 배타적인 하나의 회원재(club good)의 성격이었다. 그러나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이 수행할 NATO의 새로운 임무인 집단안보는 그 성격이 비경쟁적이지 비배타적인 공공재(public good)라는 점이다. 즉 NATO의 방위영역 외 평화활동에 의해서 제공되는 혜택이 비배타적이기 때문에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활동과 관련하여 NATO 회원국가들간에 방위비 분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명확한 외부위협의 부재로 평화활동을 착수하고자 원하는 지도자들이 그에 필요한 내부적 자원이나 정치적 의지를 동원하기가 쉽지 않다(Lepgold, 1998: 90-91). 레이크와 로스차일드가 지적하듯이(Lake and Rothchild, 1996: 67), 냉전때와는 달리 NATO의 명확한 위협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NATO 회원국가들은 비용과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을 작동시킬 동기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이 수행할 집단안보의 공공재 성격에서 연유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많은 측면에서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전형적인 사례였던 보스니아 사태에 대한 NATO 회원국가들의 대응과정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다. 보스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입장은 제2의 베트남 끈경(Vietnam quagmire)을 우려하여 미군 병력의 투입보다는 공습을 지지했다. 그러나 상당규모의 지상군을 투입한 프랑스와 영국은 자국 병력의 인질화와 사태의 확산을 우려하여 미국의 공습을 반대하였다. 또한 독일과 이탈리아 등을 위시한 다른 회원국가들은 보스니아 사태해결에 대해 형식적인 지지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1995년 11월의 데이턴(Dayton) 평화협정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이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집단안보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점은 비록 NATO의 모든 회원국들이 필요한 군사행동을 찬성했을지라도 일부 회원국가들만이 그러한 군사행동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Heuser, 1996: 71).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집단안보 역할도 NATO의 모든 회원국가들이 지지한 정책일지라도 사실상 NATO의 주요 국가들, 즉 미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에 의한 군사행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은 아마도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집단안보 역할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두 번째 변수인 회원국가들 간의 병력투사 능력의 비대칭성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회원국가들 간의 병력투사 능력의 비대칭성은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와,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프랑스와 영국만이 실제적으로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집단안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은 역사적 이유뿐만 아니라 냉전기 동안 자국의 지전략적 조건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 반대하고 자국의 병력구조의 조정을 매우 완만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Roper, 1997: 223).

유럽 국가들 간의 병력투사 능력의 이러한 비대칭성은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장래 역할에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시킬 수 있다. 많은 유럽인들은 사활적 이익의 방위는 자국의 국경선을 넘어서거나 심지어는 자국에 바로 인접한 동맹국가들의 국경선을 넘어서까지 필요하다고는 당장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식민지를 보유했었고 식민지전쟁에 관여했었지만, 유럽국가들은 적어도 지난 반세기동안에는 그러한 경험 없이 있었다. 해외에서 병력을 전개하는 것은 그러한 식민지시대의 함축성을 가지고 있고, 기껏해야 낡은 것으로 인식되고, 최악의 경우 비도덕적인 신식민주의로 인식된다.<sup>10)</sup>

회원국가들 간의 병력투사 능력의 비대칭성이 갖는 두 번째 성격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이다. 다국적 합동수행병력 프로그램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유럽대륙에서 뿐만 아니라 유사시 중동이나 아시아에서의 우발적 사건에도 자신들의 병력을 투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스니아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는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병력투사 능력의 비대칭성이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장래역할에 관해 시사하는 점은 미국은 제한적인 병력투사 능력을 가진 유럽 국가들을 진지하게 동반자로서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역할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정책적 지지나 비용부담, 그리고 보스니아 사태처럼 미국이 개입하기 꺼리는 사건에 유럽 국가들의 지상군 투입 등의 불균형적인 역할 분담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단적인 경우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집단안보 역할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경우에만 활발히 전개될 수도 있다.

10) 이러한 인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1994년 6월 프랑스가 르완다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을 제안했을 때 다른 유럽국가들은 그것을 신식민주의적 함축성을 갖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프랑스의 제안을 반대한 경우이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병력투사 능력의 비대칭성은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역할과 관련된 세 번째 주요 변수인 전략문화의 상이성을 강조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전략문화의 상이성은 무엇보다도 양차 세계대전의 결과에서 기인하였다. 양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미국은 때때로 심각한 자국의 국내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은 본토에서가 아니라 전세계에 걸친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군사적 개입에 대한 인지된 필요성, 때때로 해외 국가들에서 상당한 병력을 전진배치할 필요성, 그리고 미국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미국의 전략문화 때문에 미국은 자국의 협소한 국가안보 필요성과 초강대국으로서 자국의 인지된 세계적 책임성 모두를 지탱할 수 있는 재래식과 핵전력을 위한 이용가능한 자원들을 보유했다 (Makins, 1985: 27-28). 따라서 미국의 방위예산은 영토방위의 원칙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미국의 이익들을 보호하기 위한 병력투사 원칙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미국 방위예산의 소규모만이 영토방위에 쓰여지고 다량의 방위비가 해외에 있는 미국의 이익들과 가치들을 보호하는 병력투사 능력을 위해 지출된다 (Asmus, 1998: 45).

냉전시대 동안 유럽의 전략문화는 상이한 일련의 요소들과 역사적 경험들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책과 전략의 일차적 목적은 어떠한 종류의 전쟁발발도 회피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이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해외 공약을 감축하고 실용주의적 태도로 전환해왔다. 그 결과 유럽 국가들은 지역적·국제적 안보를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로서의 군사력의 균형보다는 안정성을 창조하고 국가이익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비군사적 수단들을 보다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군사체제는 미국과는 정반대이다. 유럽의 국가적 병력들은 주로 자신들의 영토와, 일부 경우에 있어서 자신들과 인접한 NATO 주변국들의 영토를 방위하기 위해 조직화되었다. 지난 50여년 동안 영토방위는 유럽의 주된 급선무였고, 유럽 군사력의 훈련과 장비는 이러한 임무에 맞게 계획되었다 (Kugler, 1994; Peters and Dëshong, 1995). 물론 1980년대 초반 유럽주의자의 등장과 냉전 종식으로 유럽의 전략적 시야가 과거보다는 넓어졌으나, 넓어진 유럽의 전략적 시야는 기껏해야 두 개의 지리적 호형(geographic arcs)<sup>11)</sup>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전략문화의 상이성은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역할에 관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sup>12)</sup> 무엇보다도 오늘날 유럽인들은 내부지향적 태도를

11) 첫 번째 지리적 호형은 동쪽의 호형으로 독일과 발칸반도를 거친 러시아 사이의 북유럽의 발트해(the Baltic sea)에서부터 흑해(the Black sea)에까지 미친다. 두 번째 호형은 남쪽의 호형으로 북아프리카와 지중해(The Mediterranean)를 거쳐 터키에 이르고 더 넓은 중동지역을 포함한다 (Asmus et al, 1993: 28-40).

12)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창설과정에서 나타난 미국과 프랑스와의 갈등은 이러한 측면을 잘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현존하는 NATO의 주요 사령부, 특히 유럽연합군사령부의 조약 제5조에 없는 임무들로의 확대를 반대했다. 프랑스는 그러한 확대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임무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통제를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미국은 자국이 참여하지 않는 유럽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이 유럽을 동등한 전략적 동반자로 취급하거나 공동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들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럽과 공유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은 때때로 유럽의 전략적 근시를 불평하지만 유럽 국가들을 그러한 쟁점들에 개입시키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과 유럽의 우선순위들이 똑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만약 유럽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면 필연적으로 자국의 정책이 제한을 받거나 영향력이 상실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신전략개념에 바탕한 NATO의 군사지휘구조의 개편과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집단안보 역할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NATO는 안보의 지역화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안보성격도 과거와는 달리 다면적·전방향적이고 예측과 평가가 어렵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NATO는 이러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집단방위의 역할보다는 위기관리와 평화활동으로 대변되는 집단안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NATO의 새로운 존재이유의 실제인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성공적인 집단안보 역할은 집단안보의 공공재 성격, 회원국가들 간의 병력투사 능력의 비대칭성, 그리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전략문화의 상이성이라는 세가지 주요 변수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따라 긍정/부정적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미국과 NATO의 유럽 국가들은 21세기의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 양상은 현재 진행 중인 NATO의 구조조정의 변화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특히 군사지휘구조의 변화양상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게 중요한 정책적 함축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NATO의 성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NATO의 군사지휘구조의 변화중에서 주요 NATO 사령부인 유럽전략사령부와 대서양전략사령부, 그리고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사령본부를 누가 맡을 것이냐의 문제, NATO내에서 유럽 안보방위조직의 실제적 발전가능성의 여부, 그리고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이 수행할 집단안보 역할의 지리적 범위와 그 성격 등의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들은 새로운 미국-유럽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쟁점들이다. NATO 회원국가들도 이러한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보다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NATO 성명서의 희망찬 논지와는 달리 새로운 미국-유럽 관계의 전도는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무엇보다도 군사구조의 변

---

주도의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에서 NATO 자산의 이용을 우려했다. 미국과 프랑스간의 논쟁으로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은 2년이상 정치적 곤경에 빠져버렸다. 결국 1995년 12월 프랑스의 NATO 군사위원회로의 복귀를 계기로 이러한 입장차이를 조율할 수 있었다 (Thomson, 1998: 88-89).

화에 따른 미해결 쟁점은 논의로 하더라도 NATO 회원국가들은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집단안보 역할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집단안보 역할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있는 세가지 변수들의 성격은 단기간내에 상호 조정과 융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NATO에게 새로운 안보 딜레마를 부여할 수 있다.

냉전시대 NATO의 안보 딜레마가 소련의 위협에 대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간의 상이한 대응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전개되었다면(줄고, 1998: 91-109), 오늘날 NATO의 새로운 안보 딜레마는 상이한 전략문화를 갖고 있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집단안보 역할의 주체와 그 범위를 둘러싼 갈등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또한 NATO의 확대정책이 이루어지고 회원국가들의 방위비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집단안보 역할은 그 성공적 시행여부를 떠나 NATO의 응집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집단안보 역할은 현실적으로 일부 주요 국가들만의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안보의 지역화 현상이 강화된다면 NATO의 집단방위 성격은 사실상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NATO의 회원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제 NATO는 필수적 동맹(alliance of necessity)이 아닌 하나의 선택적 동맹(alliance of choice)이 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는 점이다. 다국적 합동수행병력의 실제적인 집단안보 역할은 NATO가 냉전의 일시적 부산물이었는지 아니면 냉전을 초월하는 가치와 논거를 지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이수형. 1998. 「냉전시대 NATO의 안보 딜레마: 포기-연루 모델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8집 1호.
- Asmus, Ronald D. Richard L. Kugler, and F. Stephen Larrabee. 1993. "Building a New NATO." *Foreign Affairs*. 72(4). September/October.
- Asmus, Ronald D. 1997. "Double Enlargement: Redefine the Atlantic Partnership after Cold War" in David C. Gompert and F. Stephen Larrabee, eds. *America and Europe: A Partnership for a New Era*.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l, Christopher L. 1998. "Nattering NATO Negativism?: Reasons Why Expansion May Be a Good Thing."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4(1). January.
- Barry, Charles. 1996. "NATO's Combined Joint Task Forces in Theory and Practice." *Survival*. 38(1). Spring.
- Carpenter, Ted Galen. 1992. *A Search For Enemies: America's Alliances after the Cold War*.

- Washington, D.C.: CATO Institute.
- Claude, Inis L. Jr. 1971. *Swords into Plowshares*. New York: Random House.
- Cornish, Paul. 1997. "NATO at the millennium: New missions, new members... New strategy?." *NATO Review*. 45(5). Sep./October.
- Cragg, Anthony. 1996. "The Combined Joint Task Force Concept: a Key Component of the Alliance's Adaptation." *NATO Review*. 44(4). July.
- \_\_\_\_\_. 1997. "Internal Adaptation: Reshaping NATO for the Challenges of Tomorrow." *NATO Review*. 45(4). July-August.
- dePuig, Lluís Maria. 1998. "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Identity within NATO." *NATO Review*. 46(2). Summer.
- deSilva, Lt. General Mario. 1998. "Implementing the Combined Joint Task Force Concept." *NATO Review*. 46(4). Winter.
- Eyal, Jonathan. 1997. "NATO'S Enlargement: Anatomy of a Decision." *International Affairs*. 73(4). October.
- Freedman, Lawrence. 1991/92. "Order and Disorder in the New World." *Foreign Affairs*. 71(1).
- Garnett, John C. 1996. "European Security after the Cold War." in M. Jane Davis, ed. *Security Issues in the Post-Cold War World*. Cheltenham, U.K.: Edward Elgar.
- Goldgeier, James M. 1998. "NATO Expansion: The Anatomy of a Decision." *The Washington Quarterly*. 21(1). Winter.
- Gordenker, Leon & Thomas G. Weiss. 1993. "The Collective Security Idea and Changing World Politics." in Thomas G. Weiss, ed. *Collective Security in a Changing World*. Boulder &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 Heuser, Beatrice. 1996. *Transatlantic Relations: Sharing ideals and costs*. London: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Joulwan, Gen. George A. 1995. "A New NATO: New Strategy, New Structure, and New Programs." *International Defense Review*. Defense 95.
- Kaplan, Lawrence. 1990. "Collective Security and the Case of NATO." in Joseph Smith, ed. *The Origins of NATO*. U.K.: University of Exeter Press.
- Keohane, Robert O.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ke, David and Donald Rothchild. 1996. "Containing Fear: The Origins and Management of Ethnic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21(2). Fall.
- Legge, Michael. 1991. "The Making of NATO's New Strategy." *NATO Review*. 39(6). December.
- Leppgold, Joseph. 1998. "NATO's Post-Cold War Collective Action Problem." *International Security*. 23(1). Summer.
- Mearsheimer, J. J. 1990.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2(1). Summer.

- NATO. 1995. *NATO Handbook*. Brussels: NATO Office of Information and Press.
- \_\_\_\_\_. 1989.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1949-1989: Facts and Figures*. Brussels: NATO Office of Information and Press.
- Naumann, Klaus. 1998. "NATO's New Military Command Structure." *NATO Review*. 46(1). Spring.
- Park, Bill. 1996. "NATO Summits." in David H. Dunn, ed. *Diplomacy at the Highest Level: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ummitry*. London: MacMillan Press Ltd.
- Slocombe, Walter. 1997. "Is There Still a Role for Nuclear Deterrence?." *NATO Review*. 45(6). Nov.-Dec.
- Thomson, James A. 1997. "A New Partnership, New NATO Military Structures," in David C. Gompert and F. Stephen Larrabee, eds. *America and Europe: A partnership for a new era*.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ss, Thomas G., ed. 1993. *Collective Security in a Changing World*. Boulder &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 Wolfer, Arnold. 1964. *Discord and Collaboration: Essays on International Politics*.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Worner, Manfred. 1991. "NATO Transformed: the Significance of the Rome Summit." *NATO Review*. 39(6). December.

## NATO'S COMBINED JOINT TASK FORCE FOR COLLECTIVE SECURITY

Soo-Hyong Lee

*Research Institute of Peace Studies*

During the Cold War period,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played a vital role in ensuring Western European security. In the wake of the end of the Cold War in 1989, the European security environment has been strikingly transformed. As a result, today's European security challenges are highly varied and all too real. Ethnic and religious tensions abound, the continuing tragedy in the Balkans underscores the reality of regional instabilities and the potential for



even more serious conflicts.

This complex and dangerous state of affairs demands that NATO refocus itself. Since the London Declaration of 1990, NATO has steadily and, often, audaciously reshaped itself into a new NATO. In particular, NATO's new Strategic Concept, agreed to at the Rome Summit in 1991, outlined the overall dimensions of this reshaping. During this process, the importance of a collective security role emerged and the Combined Joint Task Force(CJTF) was established to play a new role. With CJTF, NATO has found a means with which to enable military planning across the spectrum of operations from collective security to traditional miss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wofold. First, it seeks to discuss NATO's restructuring in accordance with the new Strategic Concept, adopted at the Rome Summit in 1991. Second, it tries to critically examine how three variables: the nature of public goods of collective security, asymmetry of power projection capability among NATO's members, and difference of strategic cultures between America and Western Europe, have affected the role of CJTF's collective security.